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

5월 1일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나 8시간노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후 1889년 7월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제2국제당창립대회에서는 노동계급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시카고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기념하여 매해 5월 1일을 전세계노동자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5.1절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한 때로부터 백수십여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노동의 참된 권리와 행복을 찾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주인이 되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는 인민의 나라이다. 이 땅 어디를 가나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인이 되어 일하는 공장과 농촌들, 인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고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공원과 유희지들이 있다. 희한한 문명의 별천지들도, 제일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휴양소, 관광소들도 다 인민을 위해 있다. 평범한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리지는 국가의 혜택은 날로 더욱 커가고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을 위해주는 고마운 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이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꿰뚫어 이겨내며 인민의 나라로 그 이름 더욱 찬란히 빛내어올수 있는것은 인민위치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행복을 위해 한생을 초월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즐거우게 이어지고있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그이의 신조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정권기반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며 공화국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승승장구 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인민은 잊지 못한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지난해 9월 평범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당중앙위원회 프락에서의 성대한 연회와 2022년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이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한 나라의 수령의 저택이 있던 곳에 일떠선 사회주의 변화가-경로들의 새 주인들,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절로 터져나오는 사회주의선경-송화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펼친 사람들도 평범한 근로대중이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인민사랑의 전설들, 그것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이념위전, 위민헌신의 리념과 정치가 안이한 고귀한 결정체이다.

돌아보면 력사의 어느 시기나 인민이 있었다. 하지만 공화국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나라는 없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보면서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국호에도 명기되어있듯이 조선은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은 김정원수님의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가활동의 기준으로, 집단주의적풍모는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선은 인민의 나라, 일심단결의 나라로 더욱 빛을 발할것이다.》

항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남조선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각종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완전고용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항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임시고용근로자들을 말한다. 남조선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고 각종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사회적 문제로 되어왔다. 하기에 력대적으로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기내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떠들어왔다. 그러나 매년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하였다. 지난해 10월 남조선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근로자수가 줄어든 반면에 비정규직근로자수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 099만 2 000명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는 806만 6 000명에 달하고있으며 이것은 2020년보다 64만여명이나 더 증가하고 2016년 8월보다 159만여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된다고 한다. 결국 전체 임금근로자들이운데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2.9%에서 해마다 늘어나 2021년에는 38.4%에 달하였다고 한다. 비정규직근로자가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임금근로자의 40%정도에 이른것은 관료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20년 같은 시기에 비해 5.8%정도 늘어난 반면에 정규직은 10.2%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의 임금격차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20대청년들이 비정규직근로자로 많이 전락하고있는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20대 근로자수는 353만 7 000명이며 그중 비정규직은 141만 4 000명으로서 40%정도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20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한해동안에만 13만여명, 최근 5년동안 30만여명이 늘어났으며 2016년에 비해 5.5%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정규직근로자들은 자기가 언제 비정규직으로 내몰릴지 몰라 불안과 위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세상에 없는 인민의 로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의 주인공들 - 새 집들이 경사로 흥성이는 경루동을 찾아서 -

로동당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민복의 보급자 리인 경루동에 새집들이한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신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에 이삽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복종의 복을 받아안은 사람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에 눈부신 새 집들이 한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신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에 이삽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복종의 복을 받아안은 사람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에 눈부신 새 집들이 한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신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에 이삽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복종의 복을 받아안은 사람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에 눈부신 새 집들이 한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신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에 이삽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복종의 복을 받아안은 사람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환자치료에 정성을 기울여온 의료일군... 가는 곳마다에서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의 창가마다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경루동으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13호동의 현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명 호화주택의 주인인듯한 한사람이 현관앞에서 살림질용허가증을 손에 쥔 채 웃고있는 모습이 안겨왔던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가에도 따스운것이 고여올랐다. 알고보니 그는 평양의학대학원원의 체형철과장이었다. 경루동의 살림질용허가증이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에도, 너무 멋있어 궁궐같은 새 살림집을 보는 순간에도 이런 집에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꽃피던 꿈이던 현실이었다. 나라에서는 평범한 의료일군이 그를 성실한 근로자라고 경루동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불러주었던것이다. 방안을 돌아볼수록 걱정은

더욱 커만 갔다. 2층으로 된 살림집의 여러칸이나 되는 방들에는 생활을 기울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새삼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형철과장이었다. 이 날날 그는 식도정맥류결찰술과 비장동맥부전결찰술을 비롯한 세계적수준의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몇몇동안에 그가 연구개발한 여러의 약품들은 간질병치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약품으로 되고있다. 과의 의사전원이 학위소유자가 되고 가치있는 의학과 학기기술성과를 이룩하여 전국적인 의학과학술회의에

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 기까지에는 과정인 그의 남 모르는 노력이 깃들여있었다. 《우리 시대 보건의료로서 용담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저의 그마한 소행을 공을 비롯한 세계적수준의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여러 차례 은정어린 감사도 보내주시고 박사로, 공훈의사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나라가 다하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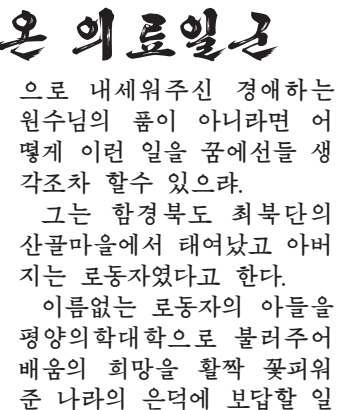
이렇게 꿈속에서조차 그려본 적 없는 행복의 꽃방석에 앉혀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말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 부럽없는 복받은 인민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가 높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은 순회길을 지주들례를 열 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로동의 보람찬 생활속에 수십년째 무수히 찍어온 그의 애국의 마음을 나라에서는 값높이 빛내어주었다. 평범한 직공인 자기를 공훈장지공,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고 지난해 9월에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 대표로 불러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분부청사에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걱정을 토로하였다. 《제가 20여년간 다세대운동의 순회길을 취임없이 달린것은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하여 공민으로서 용담 해야 할 본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듯 대개같은 사랑을 또다시 받아안았으니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루동에 특색있게 일떠선 아파트의 2현관 3층 2호에서 살고있는 방석운의 가정에도 들렀다. 80고개를 바라보는 그는 흥분된 심정을 일깨워 리놓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저에게도 이런 호화주택을 안겨주었습니다. 황혼의 인생에도 행복의 봄빛을 안겨주신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너무도 자애롭고 눈에 넘쳐 감격과 기쁨을 무는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하면 지난 40여년간 배우생활을 하면서 수십편의 예술영화와 TV연속소설, TV극들에 긍정영역보다 부정영역상으로 많이 출연한 판독이는 명배우이다. 그는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적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의 연출가는 이 장편을 보고 집행부위원장으로 위장하고 전후복구건설시기 건설계장소(당시)에 잠입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날뛰는 간첩역을 손색없이 할수 있는 직업인자가 바로 방석운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때 그는 집행부위원장에선 섣동 등의 할수 없다고 한다. 《제가 간첩인 집행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간첩이 누구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간첩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들 어떻게 보겠는가고 하면서 저말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방석운은 생각을 고쳐썼다. 나 하나의 부끄러운, 자식들의 부끄러움때문에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주의 어려웠던 시기 강선계장소에 잠입하여 못된것을 다한 나쁜놈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극심한 난관을 겪었던가, 혁명은 나 자신으로 부터! 배우의 이러한 정신적양양은 연기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다. 한 배우의 남모르는 마음속고충과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인민배우로 내세워주시신분은 위대한 장군님 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가 진행되는 당중앙위원회